

'양파' 한빛원전... 끝없이 터져나오는 부실 의혹들

원자로 관통관 부실 자재·무자격 용접사 투입·검사 부적절 하도급 정비 과정 영상 촬영 약속도 묵살... 5호기 한 곳서만 부실 의혹 4건 '해명' 책임은 나몰라라' 한수원 미온적 대응에 지역민 불안감 증폭

한빛원전의 부실한 정비·점검·운영이 갖은 의혹을 낳고 있다. 원전 운영을 맡은 한수원의 미온적 대응도 지역민 불안감을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한빛 5호기의 경우 6개월간 진행된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안전성을 의심할 부실 정비 및 관리·감독 문제점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할 한빛원전 측은 사고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 투명하게 공개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수사 의뢰와 미온적 해명으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6개월 간 5호기 한 곳에서만 부실 의혹만 4건-한빛원전 5호기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실시된 '제 13차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시공 불량·부실 관리 의혹 (광주일보 11월 20일 6면)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고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할 원전에서 불안 요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 분석이다.

계획예방정비는 원전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8개월마다 실시되는데, 5호기는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부 용접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자재 사용 ▲무자격 용접업자 투입 및 방관 ▲공인검사기관이 아닌, 개인 검사원에게 하도급을 줬 추진한 검사 ▲지역민들과 약속한 원전 정비 과정의 영상 촬영 묵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의혹 중 원자로 관통관을 용접할 때 애초 사용하겠다는 '인코넬 690' 재질이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용접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한빛원전측은 기존 관통관에 사용된 '인코넬 600' 재질이 고온·고압에서 부식과 균열에 취약해 단점을 보완한 인코넬 690 재질로 보강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하려 했었다.

원전 정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보관하겠다는 약속도 녹화 기록조차 보관하지 않은 행태도 사실로 확인됐다.

여기에 용접사들이 자격이 없는데도 원전 작업에 투입됐고 이들의 무자격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

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이다. 최근 제기된 공인검사기관과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기관이 직접 검사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개인 검사원에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 등도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다.

관통관에서 균열과 격납건물에서 커다란 공극이 발견되는가 하면, 증기발생기 운영 과정의 미흡함도 드러나 발전을 재개한 지 몇 일만에 원전 가동이 멈추는 부실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난 바 있다. 한빛 4호기가 3년 넘도록 가동을 멈추고 있는 점도 정비·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지역민들에게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빛원전 측은 지난 7월 내놓은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 (이하 검증보고서)에서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1곳(69번)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용접봉이 잘못 선택'됐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그러나 한수원 발표와 달리, 추가로 규격과 다른 재질로 용접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뒤늦게 확인된 부실 정비·관리 실태와 관련,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수원은 애초 원전 시공을 맡은 두산중공업에게 다시 검증을 맡겨 부실한 검증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역할과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자격 용접사들의 작업 공정 투입 의혹에 대해서도 두산중공업이 수행한 일일 뿐 한수원의 책임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재가동을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묵인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등학교 전수검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선을 넘어선 13일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간접 접촉 수용자 다인실에 격리 집단감염 부른 '무감각 교도행정'

광주교도소 6명 추가 감염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이 쏟아지고 있다. 교도소 격리 여건 상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족들 면회나 변호인 접견 불가 및 재판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3일 광주시와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교도소 수용자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 중 접촉자로 분류된 198명이 자가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중이다.

광주교도소에서는 현재까지 직원 4명, 수용자 19명 등 23명이 확진됐다.

교도소 측은 수용 공간을 감안해 확진자를 포함 밀접 접촉자 위주로 1인실에 격리하고 나머지 인원을 2-3명씩 다인실에서 머물도록 해왔는데,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대부분이 다인실에서 머물렀다는 점에서 같은 공간 내 다른 수용자들의 확진 판정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803·804번과 같은 방을 썼던 수용자 3명과, 807번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4명의 수용자도 이날 1인실로 격리됐다.

수용 여건을 내세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용자들을 모두 1인실로 격리 조치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집단감염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지난달 9일부터 중단된 수형자 가족들의 면회 및 변호인 접견 등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미뤄졌던 재판도 다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교도소 내 선고 재판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달 26일 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만료, 공소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교도소 선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재판장의 일침 "접대·향응으로 다 해결되나"

'윤장현 전 시장 아들 사칭' 돈 받은 피의자 점유 선고

"세상이 접대와 향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 A(38)씨를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담당 재판부는 또 "솔직히 병원 치료받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고민스럽다"고 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따른 재판부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접근한 뒤 세무공무원 및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 B(38)씨를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며 거짓으로 소개했고 "세금을 갖고 검찰 고발까지 안되게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 못하게 누르는 것도 일을 봐야 한다"며 B씨의 일 처리를 위해 2000만원이 필요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공범을 회유하는가 하면, 범행을 회피하거나 수사기관 요청에 불응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정·반성,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 등을 감안 요소로 반영하면서 "지병으로 교도소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통해 검사장이 일을 봐주기로 했다"거나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A씨의 범행에 동조한 혐의로 죄질이 가볍지 않더라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횡령 혐의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영옥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의 횡령 혐의(광주일보 12월 8일자 6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3일 기 전 단장과 구단 직원 2명을 광주시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 전 단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FC 단장을 역임하면서 구단 예산 3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광주FC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기 전 단장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기 전 단장 외에도 구단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중에 있으며,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협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